



태초소년의 후학으로
복상 주변에는
커다란 현맥이
쳐졌다.

도대체 약조한
속가관신인이 되려
은둔에 붙자들이
거대한 불상을 보지키려
구름처럼 물려들었다

코스님
종의갯머
~!!

별 말씀을
...
다 부쳐서
...
...
...

작업은
잘하고 계시지
... ?!

출입禁止

제약식 시한이 다되어서
제가 학업장을 찾아
태형 스님은 언제나
그곳에 머물셨다.
영그려나 남아
있었습니다.

2... 2번에
편지 내용여.

나무아미
라불 ~
관세음
나한 ~

미안하이 ...
나오이젠 들렀나 보네 ... 예전처럼 몸이
맑은 편지 알라 ... 계속과들나 보네 ... 키가
와니 즐겁네 ... 하지말 4이 기와 보신 드로
만들었으니 ... 잘모시도록 하거 ... 테수 ...

2... 2점이면
이 불상이다 그
2... 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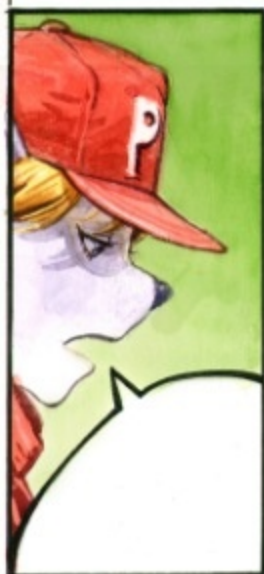
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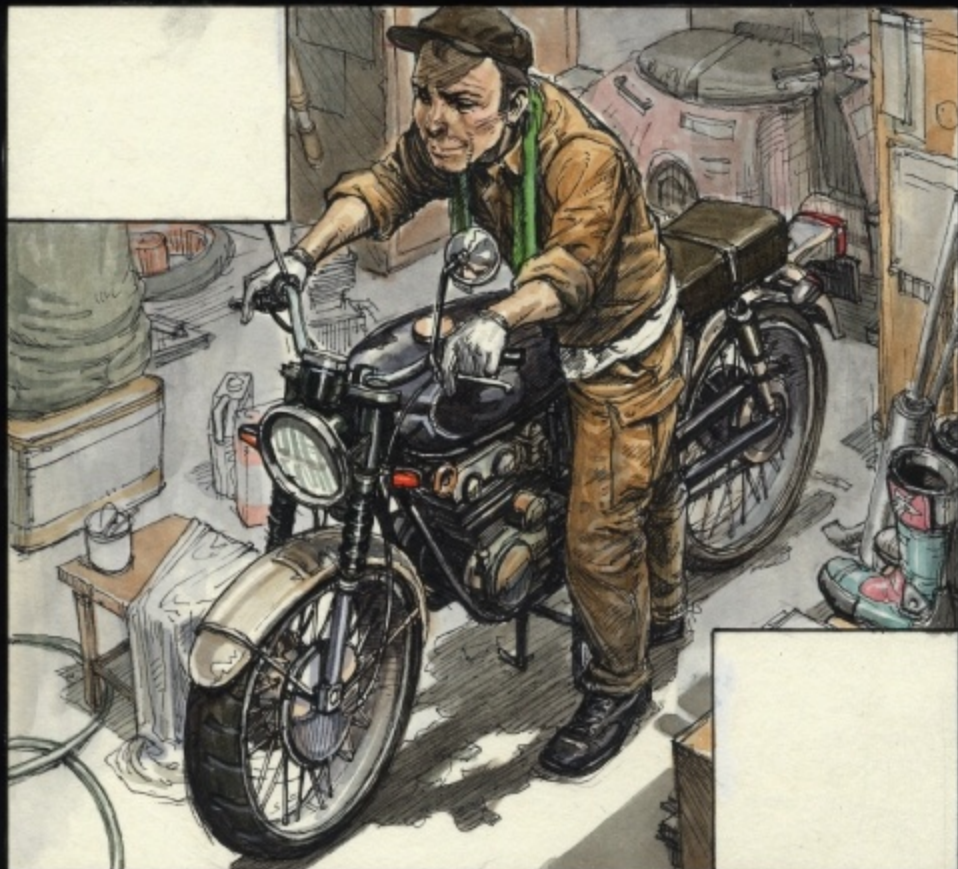
















참치/김밥안에
참치가없다네!!



강!!
강

강강

이것입니다.
대단하죠!!
대웅스님께서 거의 드렸고
하셨습니다... 그만 봐주세요
떨어지셨습니까... 돌아서서
전까지도 애착을
보이셨는데....

거의 절반은
간신히하셨는데...
태월스님!!
달아주실수 있겠
습니까?!

대웅스님께서
꽤 애쓰셨군요...
형제나 인상이 아주
잘 나왔어...
여기 대웅스님야

무선 ~
자나 한잔
하고 시작
하자...

태월 스님의 불력과 무공
이라면 다음달 석가탄신일
까지 완성할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이렇게
쓰고 복탁 드려
드립니다

